

편집 후기



벼랑앞에 선 당혹감, 새로운 일,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는 호기심, 「방재와 보험」에 합류되는 순간의 이런 느낌은 잠시뿐, 원고창탁에서 교정, 발간에 이르는 바쁜 일정은 잡념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 벽들을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과정 하나하나를 익히며 「방재와 보험」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야 했으니가.

34호부터 증면됨에 따라 애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을 신기위해 편집팀은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한방사계, 용어사전, 방화기술등을 추가하였으나 모자라는 지혜에서 선정한 탓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다음호에는 좀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참신한 소재를 발굴하여 풍성한 가을호를 준비하리라.

우리 모두 삼복더위에 건강한 여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옥고를 주신 집필진과 「방재와 보험」을 아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建)

협회 창립14주년을 맞아 이번호에서는 그동안 협회가 수행해온 화재안전점검 업무의 허실을 짚어보기위한 특집을 마련하게 됐다.

하나의 단체로서 14년정도의 연륜을 쌓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든 음미해 볼만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는 것은 또한 앞날을 향한 커다란 도약의 몸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풀해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으로선 협회의 전문문제와 함께 협회가 지니은 방재분야의 전문적인 기능이 앞으로 어떠한 환경속에 놓여질 것인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모든 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밝고 건강하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려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협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콩트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7 / 여름호 계간 / 비매품 (통권 제34호)

등록 / 마-827호 (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7년 7월 1일

인쇄 / 1987년 6월 30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창미문화사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